

전현직 양육단체장 및 기자간담회 실시

- 업계 화합 중요성 재확인, 관련 연안 등 논의 -

본회는 지난 12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두동 소재 경동골가든에서 전현직 양육단체장들을 초대, 간담회를 실시하고 업계 현안 및 양육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시간을 마련했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내 양육산업에 대해 해안을 갖고 있는 전현직 양육단체장들의 고언을 기초로 국내 양육산업 발전 방향을 가늠해보는 한편 업계 화합을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히고 업계 화합 및 발전방향을 위한 기탄없는 토의를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현직 양육단체장들은 업계의 당면현안인 ▲ 사슴자기도축 지속허용 문제 ▲ 수입녹용 불법유통 근절 대책 ▲ 축산업 등록제 대처방안 ▲ 국산녹용 한약 규격품화 방안 ▲ 절편녹용 수입대응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 이들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기본과제로 단체간 유기적 교류 및 화합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논의내용 다음호 상보)

본회 배소식 부회장은 “업계 당면현안 해결방안은 대정부 활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시하느냐에 성패여부가 달려있다”고 전제하고 “대정부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양육협회로 모든 양육인이 단합,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현직 양육단체장들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 현 김수근 회장 및 배소식, 엄흥기 부회장, 전 이덕신 회장, 한국양육농협 전병설 조합장, 한국사슴연합회 장진하 회장, 한국사슴산업연구회 정형일 전 회장 및 이철수 차기회장, 한국양육사업단 이성복 단장 등이 배석했다.

한편 같은날 오후에는 농축산관련 언론기자 10여명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고 양육산업 당면 현안 과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았다. 이 자리에서 본회는 사슴 의무도축 대상 포함 대책으로 자기도살 허용지역 확대지정을 각 도별로 추진하고, 수입녹용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생녹용 수출국들에 고유표식 의무화를 의뢰, 국내외산 구분이용이토록 할 계획에 있음을 설명했다. **한국양육**

